

이 건물에는 뭐가 있지?

월정사 경내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건물들은 이름도 다르고 지니고 있는 의미도 서로 다르답니다. 그러면 월정사 경내에 위치한 건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가지의 건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적광전의 석가모니불은 경주 석굴암의 것을 본따 만들었으며 석가모니불 주위로 협시보살을 모시지 않은 것이 다른 사찰과 틀린점입니다. 또한 월정사8각9층석탑은 고려초기의 석탑 양식을 대표하는 탑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수광전은 흔히 '무량수전' 이라고도 불리며 내부에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수광전은 법당내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주위에 화려한 차림의 협시보살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대웅전의 웅장함과는 다른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범종루는 사찰의 사물(四物)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사물은 땅위의 중생을 위한 법고, 지하 중생을 위한 범종, 물속 중생을 위한 목어, 하늘의 중생을 위한 운판을 걸어두어 아침, 저녁으로 이 사물을 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삼성각은 불교와 여러 신앙과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곳에는 토속신앙인 산신, 중국의 도교에서 유입된 칠성신, 그리고 남인도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십이연기를 깨달았다는 독성 나반존자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서비스현장

저희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원 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국립공원내 다양한 야생동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구한 문화유적 등을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유지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공원마다 특징있는 탐방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공원관리를 실제 경험하고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국민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풍부한 영상과 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탐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탐방서비스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공원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Nature, Our Future!

자연, 우리의 미래

오대산국립공원

천년 역사의 자취를 찾아서

월정사의 역사·문화



Nature, Our Future!

- 자연, 우리의 미래

국립공원 오대산
KOREA NATIONAL PARK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Tel: 033) 332-6494
www.knps.or.kr/odea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월정사 이야기

월정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문수보살이 산다고 하는 이곳 오대산에 들어와 정진하였는데 그로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400여년을 이어온 긴 역사만큼 월정사는 수년의 시간들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친 화재로 인하여 소장 문화재와 사료들이 모두 재가 되어버리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월정사는 1964년 탄허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고 그 뒤로 만화스님과 현해스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건하여 오늘날의 월정사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재로 많은 문화재를 잃기는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당우들이며 국보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이름의 유래

월정사라 불리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오대산 동대에 해당하는 만월산의 '월'자와 서대 수정암의 '정'자가 합해져 월정사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월정사가 달의 형국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동대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월정사라 이름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월정사 경내 전경



- | | |
|----------|---------|
| 1. 적광전 | 5. 금강문 |
| 2. 수광전 | 6. 천왕문 |
| 3. 종무소 | 7. 전나무숲 |
| 4. 성보박물관 | 8. 금강교 |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장을 모신 전각으로 일주문 다음의 두 번째 문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을 지키는 외호신장의 형상이 목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를 사천왕이라 부릅니다.

월정사로 이어지는 세 개의 문

일주문은 절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문입니다. 즉 이곳부터가 경내임을 알리는 문이라 할 수 있죠. 기둥이 하나인데서 이름지어진 일주문은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로 문을 달지 않습니다.



금강문은 천왕문을 지난곳에 위치하고 있는 세 번째 문으로 이곳을 통과하면 경내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문은 '아금강역사'와 '음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 불법과 사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